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南京陷落

一

支那의首都 南京은 여에陷落되엿다。鎭江、句容、溧水의 防禦「제一크트」國防線에依하야 難攻不落을 자랑하고 首都死守를 聲言한 國民政府도 皇軍精銳에 陷落되지안흘수업섯든것이다。全面的總攻擊을 開始한以來 四個月만에 首都南京을 陷落하엿다는것은 世界戰史上에 稀有한일이다。南京城은 防空其他의 防備에잇서서 世界一이라는 評이엿다。支那軍隊의 戰鬪力은 普通의 近代國家의 陸軍으로서 遜色이업다。함에도不拘하고 이와가티 神速의스피-드로 成果를收하엿다는것은 支那軍의 劣勢에 依한것보다 忠勇한 皇軍將兵의 優越한데 基因하는것이다。다시말하면 軍事上 여러가지"핸듸캡"이 잇섯슴에 不拘하고 이와가튼短時日에 敵國首都를 陷落하엿다는것은 日本軍의 實力이 如何히 精銳한가를 左證하는것으로 다가티 祝賀할바이다。

二

回顧컨대 今回 支那事變勃發은 國民政府의 一貫한 排日抗日的 政策에 基因한다。周知하는바와가티 民國十七年 北伐完成의 뒤를이어 南京政府가 成立된後 終始一貫하야 遠交近攻政策을 取하여왓다。그結果 支那國民의 排日思想은 逐日激烈化하야 滿洲事變을 여르켯스며 支那事變까지 惹來하게된것이다。由此觀之하면 七月七日의 蘆溝橋事件勃發이 決코 偶然이아닌것을 짐작할수잇는것이다。이러한情勢下에도 帝國政府는 抗日南京政府의 反省을求하고 事件不擴大에 努力한것이 今回事變에對處한 帝國政府의 初期의 方針이엿다。그러나 支那政府는 自己實力을 過信하고 長期抵抗의標語下에 도로혀 反日的態度를取하게되엿스므로 어에 帝國政府는 東洋平和를爲하야 支那軍政의 徹底的膺懲을決意하고 全面的總攻擊을 開始하엿든것이다。

三

南京陷落에依하야 軍事上主要活動은 여것으로 一段落을지을것으로볼수잇다。그러나 여것으로 今回事變의 目的이 達成된것은아니다。支那는依然 長期抵抗을云謂하고잇스니만치 그들이 抗日을 放棄치안는限 軍事行動은依然 繼續될것이다。그리고 어떠한意味에잇서서는 事態는 南京이陷落된 今後가 더욱重視된다。따라서 帝國政府는 十日閣議에서 南京陷落後의『支那事變의 新階段에應할 國策』을 確立하엿다。即 南京陷落後에도 不退轉方針下에 第二段 第三段의長期抗戰을 決意하고 國民政府의 支那政府로서의 承認을取消하는同時에 蔣介石及 그一派의政權은 一個地方政權으로밧게 認定치안코 共存共榮을爲하는 新政權의 出現을기다려 此를相對로 諸般懸案을 解決하게로 決定하엿다。그리고 南京陷落을 契機로 蔣介石政權과 內通하는 第三國의 側援的和平工作은 斷乎 此를 排擊하려는 根本政策을 確立하엿다。이것은 帝國政府의 確乎不拔의 旣定政策으로 今後 어政策을 基幹으로하야 目的의達成에 邁進할것은 勿論이다。

壯烈한白熱戰繼續!
總攻擊開始以來廿四時間에
東北南城壁奪取戰有利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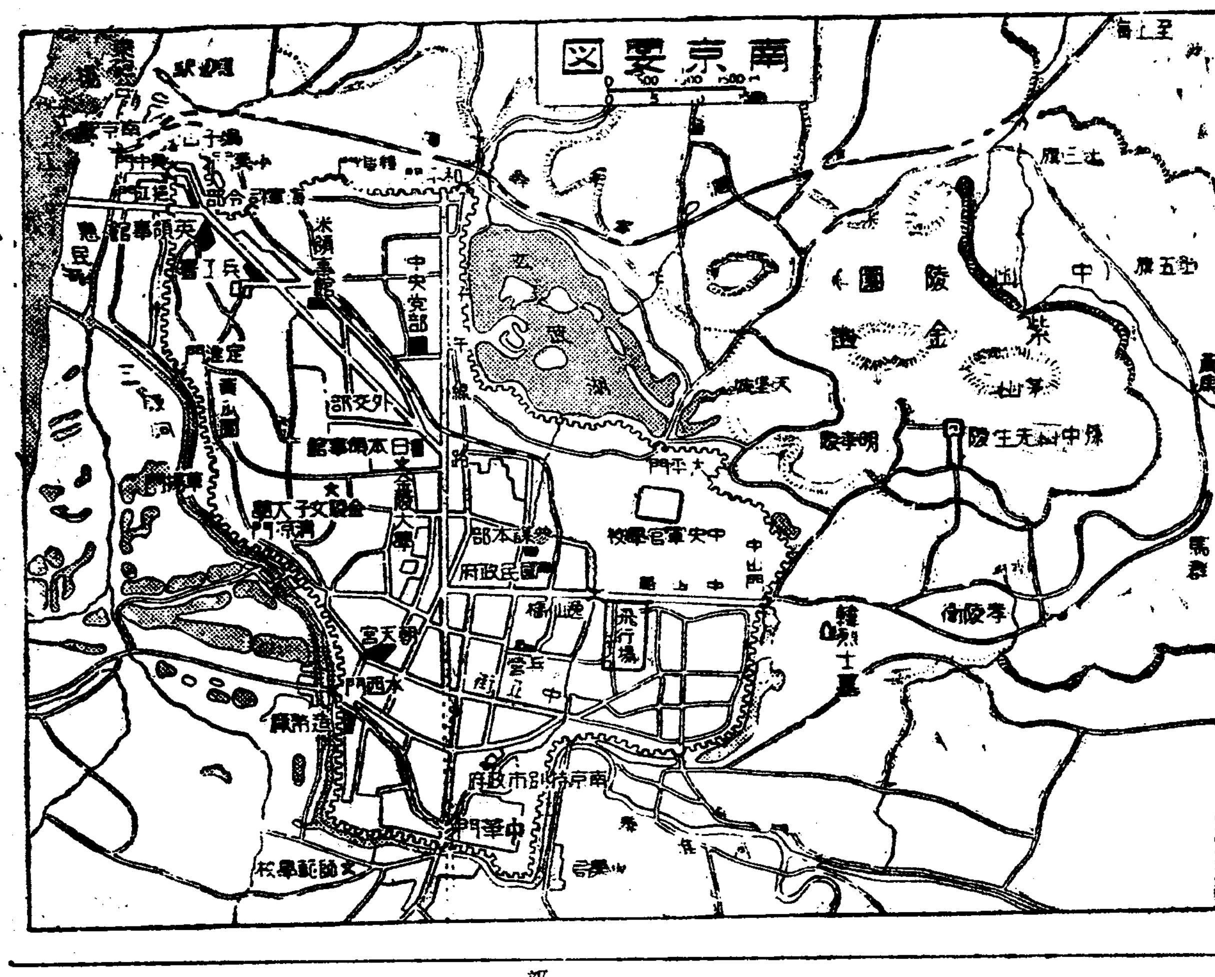
【孝陵衛十一日發同盟】紫金山東北側으로부터 南京城壁에 肉迫한 野田、大野、片桐、助川의 各部隊는 十一日朝來 猛攻擊을 開始하야 午前十一時半前後하야 和平門、太平門의 城壁奪取에 成功하야 戰鬪는 有利하게 展開하고잇다

【上海十一日發同盟】總攻擊開始以來로 最初의 二十四時間에 經過한 我最前線部隊는 十日에 繼續하야 다시 戰線을 前進하야 北、東、南三方面으로부터 城壁에 向하야 殺到하야 十一日朝來로 和平門、太平門、中山門、共和門은 機關銃、手榴彈、迫擊砲彈의 炸裂로 非常한 激戰이 展開되야 刻一刻으로 激烈을 더하고잇다

【光華門에서十一日同盟特派員發】西北兩側의 城壁上으로부터의 抵抗을 排除하면서 武定門外를 단숨에 驀進한 人見部隊는 共和門의 敵과 對峙하야 十一日朝來 再次激烈한 銃砲火戰을 交하고잇다

南京籠城의敵六萬
唯一의血路切斷
長野、山田兩部隊活躍

【蕪湖十一日發同盟特派員】九日에 當塗를 占領한 長野、山田兩部隊는 十日에 夜陰을乘하야 단숨에 揚子江을 건너 奇襲으로써 北岸에 上陸하야 十一日早曉에 烏江의 敵을 急襲하야 여를占領하고 숨쉴새도업서 省境을넘어 江蘇省에 進入하야 目下 〇〇方面에 向하야 猛虎之勢로 進擊하고잇다 어때문에 南京籠城의 敵이 唯一의血路로밋든 最後의退路도 마침내 遮斷되야 南京의 敵數六萬은 完全히 我包圍下에陷하엿다



武漢에戒嚴令!

【上海十一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武漢에도 戒嚴令이宣布되고 武漢衛戍司令部鄧儀은 十日에 戒嚴司令으로 任命되엿다 同司令部에서는 鄧司令長官의 여름으로 二十個條로된 命令을發表하야 掠奪을爲始하야 敵便에 諜報를 供給하며 敵便에 有利한 宣傳을行하거나 或은 通信을 阻碍하는 者에 對하야 嚴罰을 規定하고 또 無許可集合과 集團行進을 嚴禁하엿다

事變發生以來 敵機擊破四八六
我海軍機損害는六一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午後零時三十分公表

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指揮下의 海軍航空部隊는 中南支及北支方面全般에亘하야 連日果敢한 空襲을行하야 敵空軍基地 軍需品工場 軍事輸送機關等을爆破하야서 敵空軍의擊滅及軍需品의製造補充을破壞하야 多大한效果를 엇는同時에 中支方面의 陸軍作戰에 直接協力하야 敵陣地及 密集部隊에 莫大한損害를與하야 그進出을支援하고잇다

十二月一日부터 九日까지에確實히 擊破된 敵機數는 五十一機(內譯擊墜二十四機、地上爆破二十七機)로 이사이의我海軍機의 損害는 九日南昌空襲에서 一機를 喪失한뿐이다

支那事變發生以來我海軍機가 擊破한 支那飛行機의 累計는如左하다

▲擊墜	確實한者	二一六
	其他	一一
	合計	二二七
▲地上爆破	確實한者	二三八
	其他	二一
	合計	二五九
▲總計	合計	四八六
內譯	確實한者	四五四
	不確實한者	三二

또 事變發生以來 我海軍機의 損害는 六十一機이다

海軍航空隊〇〇機
富貴山砲臺潰滅
粵漢、廣九線一帶爆擊

【〇〇基地十一日同盟特派員發】潮田、友永兩大尉가 指揮하는 海軍航空隊 〇〇機는 十一日午前午後에亘하야아직도 最後의抵抗을하고엇는 南京의上空에 어르러 明의古官附近에 徹底的爆擊을 加하야 太平門內의 富貴山砲臺를潰滅케하엿다

【香港十一日發同盟】十一日午前九時半에 我空軍은粵漢線의 連江口黎洞等을 襲擊하고 다시 南으로도라와 英總과 그附近에 爆彈을投下하엿다 또 廣九線도 我軍에게 襲擊되엿는데 廣九鐵路局은 同線의 列車運行을 一時停止한다고 發表하엿다

伊政府十一日에
聯盟脫退를正式通告
在東京伊國大使館參事官이 外務省訪問코通報

뭇솔리니首相

【東京電話同盟】外務當局發表 今十一日午後六時에 在京伊國大使館 參事官스라막카氏는 井上歐亞局長을 外務省에 訪問하고 伊國大使의 代理로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伊國政府는 今日 同時刻에 쥬네부에서 國際聯盟事務總長에게 對하야 伊國은 聯盟을 脫退한다는 正式通告를 함을 特히 日本帝國政府에 通報하는 光榮을有한다고 口頭로써 傳達하엿다

海軍機 艦隊溯江을掩護

【〇〇基地十一日發同盟】嚴原、小牧兩大尉와 牧中尉가 指揮하는 海軍〇〇機는 今日午前午後에亘하야 〇〇基地를 出發하야 揚子江에잇서서 我艦隊의揚子江溯江을 阻止하든 鎭江의東北方約一里에잇는 砲台를 爆擊하야 여를潰滅케하엿다

支那軍全滅을 米特派員打電

【紐育十一日發同盟】紐育타임스紙 南京特派員더만·다빈氏가 九日香港을 經由하야 發한電報에依하면 日本軍의 南京總攻擊은大威力을 發揮하야 極히效果的이어서 南京衛戍司令官唐生智와 徐源泉麾下의十二個師는 日本軍의總攻擊의아페 文字그대로 全滅의悲運에 直面하고잇다

南京陷落後에도 明春까지는抵抗
米國政府側의觀測

【華盛頓十一日發同盟】米國朝野는 南京이事實上 陷落하엿다는 報道에 重要한일이라하드라도 日本의戰力에 새삼스러히 놀내고잇는데 U、P華盛頓支局의報道에依하면 政府側에서는 大體로 左와가튼 觀測을내리고잇다

南京은 벌서事實上日本軍의掌中에歸하게되엿는데 蔣介石은 그精銳部隊를 南京으로부터 撤收하야 여를 保持하지안는限 南京의 陷落은 統一支那崩潰의 第一步가될것이다

軍事的見地에서 보면 南京의陷落은 物資輸入과 莫大한稅關收入을 支那로부터 奪去한 上海陷落에 比하야 重要치안타 이에不拘하고 南京의陷落은 蔣介石의 威信과 最近支那統一에 重大한打擊을 주는것이다 어結果 다시蔣介石의 麾下領袖와從來로 南京政府와 緊密하게 團結되지못한 軍派의離反이 促進될것이다 그러나 萬若蔣介石이 精銳軍隊를保持하고 日本軍에 占領되지안흔地方의 忠順을 아직도 確保하게되면 日本軍은南京占領에 至重한것임을 發見할것이다 蔣介石은 今後에도 充分히 抵抗을 하려하야도 軍需品工場이 업기때문에 도리혀 危險하게생각되나 漢口그他 國內로 부터 供給되는 最少限度의 武器에依하야 게리라戰術을 繼續할수는잇슬것이다

蔣介石은 蘇聯의 態度硬化와 英國의 再軍備의 進捗에依하야 間接的支援을 期待하면 微微하나마 明年春까지抵抗을 繼續할는지모른다

上海天津等海港의 關稅收入喪失은 支那行政機能에 對한 重大支障이 될것이나 軍隊만은 租稅其他 國內產業에 依하야維持될것이다 支那政府는 이를豫測하고 上海로부터銀을 搬出하엿스므로 相當한「留」

蔣下野不可避
U·P通信報道

【紐育十日發同盟】南京陷落後의 蔣介石의 進退에 對하야 여러가지臆測이 行하고잇는데 十日上海發U P電은 蔣介石은 結局下野外遊하지아늘수업게 되리라고 報道하고 如左히 述하엿다 蔣介石은 政府部內의 大勢가和平論에 기우러지면 焦解抗戰을 主唱하여오든 關係上 下野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 그러한境遇에는 蔣介石은 아마一二年間 外遊하게될것이라는것이 一般으로 識者의 見解이다 日本으로서도 蔣介石의 勢力이 國民政府로부터 分離하면 구태여 蔣介石의 復歸에 反對하지안흘것이라고 觀測된다

蕪湖完全占領發表

【上海十一日發同盟】上海軍午後二時發表 = 宣城을占領한後 다시 西北으로進出하야 揚子江岸의 要衝인 蕪湖를 攻擊中이든 片岡、藤田、小堺、野副各部隊는 小池、淺野、井□海軍部隊와協力하야 十日에同地를 完全히 占領하엿다

米汽船후-버號 臺灣南方에坐礁

【마닐라十一日發同盟】米國다라汽船프레시덴트·후-버號가 十一日午前一時臺灣南方火燒島北西岸附近에서 坐礁하야 S·O·S를發하엿스므로 目下마닐라에 碇泊中인 米國亞細亞艦隊所屬驅逐艦은 右S·O·S를 受하자 即時救助하기爲하야 全速力으로 現場에 急行하엿다 후-버號는 目下切迫된 危險은업는 模樣으로 急報를 接受하고 急行한 驅逐艦은 運送船을 待機中이다

佛外相暗殺計畫 犯人逐速捕

【巴里十一日發同盟】佛國警察當局은 目下 東中歐旅行中의 佛國外相暗殺計畫을 摘發하엿다고 發表하야 세상이놀낫다 十一月四日 [illegible]

廿二億法 佛國海軍豫算
十日下院通過

【巴里十日發同盟】佛國下院은十日一九三八年度海軍豫算二十一億九千百萬法을 審議한結果 滿場一致로 이를採擇하고 即時上院에 廻付하엿다

휴겟센大使歸國

【香港十一日發同盟】過般來當地에 靜養中이엿든 駐支英國大使 휴겟센氏는 十一日正午當地發英國汽船 라프라나號로 歸國途上에 올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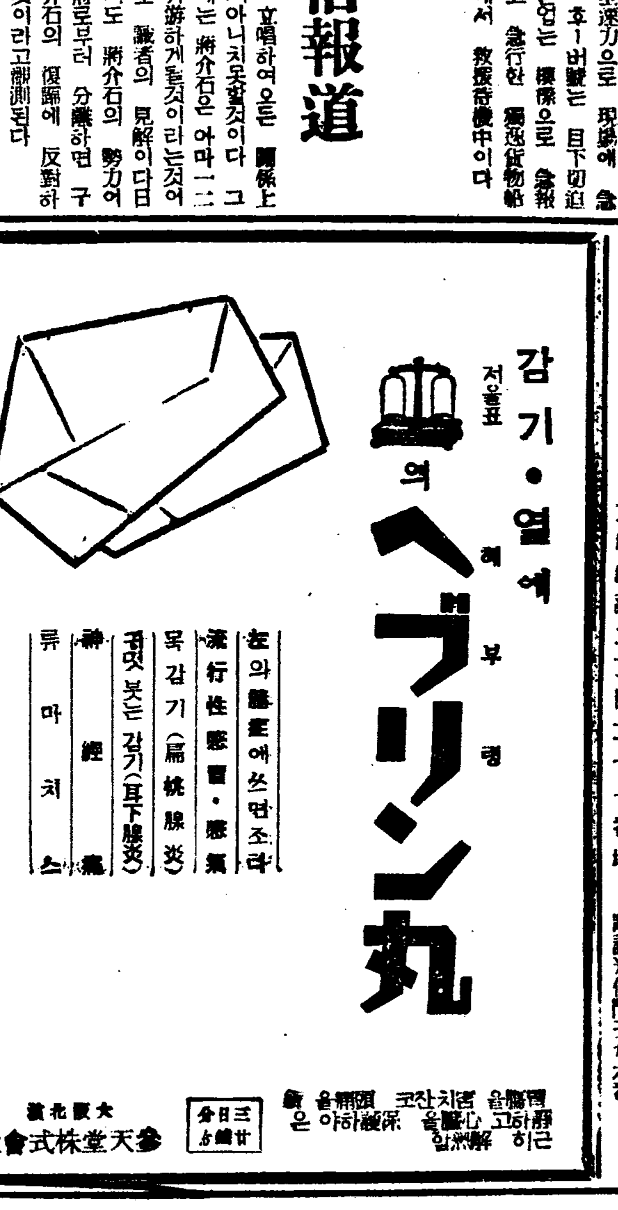
廣東省主席에 宋子文을任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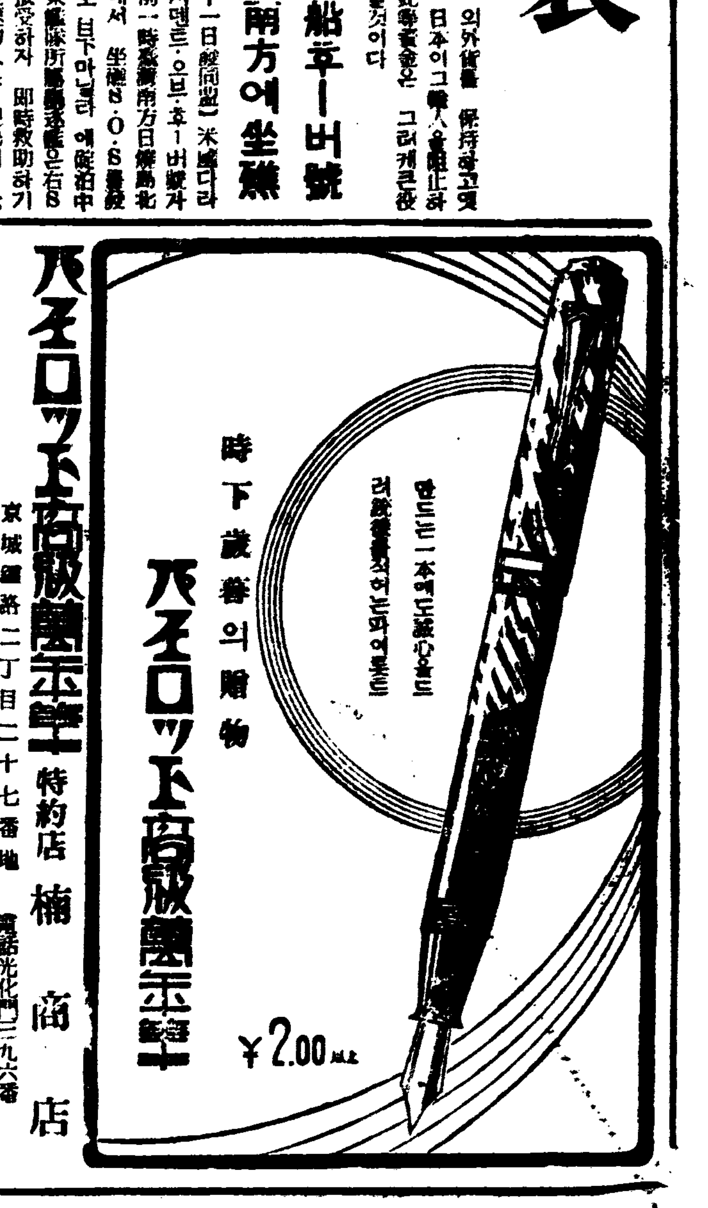
【東京十一日發同盟】廣東省政府主席 吳鐵城은 近近他에轉出하게되여 그後任에對하야는 同省이 今後支那의 經濟中樞로될에鑑하야 南慶國民政府에서 嚴選中인데 全國經濟委員會常務委員으로 中國銀行董事長인 宋子文이 後任廣東省政府主席으로 內定되여 近近正式으로 任命될러이라한다

人事·集會

▲韓相龍氏(朝鮮信託取締役會長) 渡東中 今十一日午後三時二十分列車로歸京

▲申浩均氏(東亞日報社廣告部長) 新任人事次來社





따뜻한同情의손을

경성부내의 세궁민을 기하에서 구제하자는취지에 경성부방면위원회와 경성교회 단체련합회 공동주최의 「세말동정주간」은 십일일부터 아므로 이십일까지 실시하게되엿는데 초일인 십일일부터 각방면에서 동정대(同情袋)가 모혀들어 벌서부터 호성적이 기대된다고한다(사진은 가두에 선전탑)

東海岸漁業者間에 漁場再分割論擡頭

一區、二區間"富의偏在"라고 鰛漁戰線에 異狀잇다

【淸津】 함남, 강원, 경남북등지의 건착어업(巾着漁業)을 일삼는 동해안건착조합(東海岸巾着組合) 즉제이구(第二區)소속의 경어리업자들이 린접한제일구측 함북연안에출어할수잇도록구역을 철폐하여달라는 요망의소리가나기는 이미오랜일이지만 근년에 함북측은 연해주(沿海州)까지를 합처 광범하고도 풍부한어장을 가지고 그어획고로나 생산고로 보아서 도저히 이구소속 업자에 비길바 못되는 풍성풍성한 소식을 듯고는 참을수업섯는지 다시 문제가 표면화될려는기색이보이고 이에 대한 함북도의 업자들은 대단한 긴장미를 띄우고 문제의 추이에 주시하고잇다

즉 이문제는 조선의 건착어업이 시작되든당시에 구역을 정할때 함북만을 떼여서 연해주와 함북연안을 일구로 하고 이남의 동해안 각도를 이구로 한것인데 일구에는 이구소속건착선이 출어할수업게 되야잇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 어획고는 균형을 일키시작하얏스니 제일구에는건착선이 백통(桶)인데 대하야 제이구는 그배에넘는 통수를 가지고도 총어획고는 함북이 전조선의 육할이상을 차지하고 남어지 각도가 합처서겨우 이에 따러오는 셈임으로 실상어획을 각통의 어선에 배분할때는 엄청나는 차이가잇서 자원의 재분배(再分配)를 요구하게된것이다

그러나 한편 함북업자로서는 함북의 특수성을 고조하고 당초에 제정된 구역에초문의 정성도 필요치안타는태가 실제문제화하야 표면에나 타나게 된다면 상당이 중대한 대립상태를 이룰것으로보인다는데 앞으로 구역철폐문제를 싸고도는 동해의 어장공기는 미묘하게움지기고잇다

富井氏特志

십일일부터 이십일까지 부내는 동정주간이라하야 부내 거주의 치위와 주렵에 떨고잇는 동포를 동정하자는것은 기보한바인데 동주간의첫웃날에 부내룡산서 도화정(桃花町)에잇는 도화국장주 부정실태랑(富井實太郞)씨는현금 삼십원을 동정금으로 바더달라고 십일일아침에 룡산서에가지고 오게되여동서에서는 곳접수를하엿다

煙草配達夫凍死

【長淵】 지난이일이래 서조선일대의 … 대구면송천리(大救面松川里)에서는 장정일명이 동사하엿다 동사자는 동송천리 손룡태(孫龍泰)씨집에 고용으로잇든 최정길(崔正吉)(二○)이란 사람이엿는데 지난오일 연초전매소 송천취치장에 연초(煙草)를 배달하러 그곳동하치우에 단녀오다가 동곡반리(谷盤里)모씨의집 치위를 못이기어 다리아래에도 러가 고만잠이들어 깨지못하고 동사된것을 지나든행인이 발견하엿섯다는데 그는정직우의 회생자로서 금년의치위를 여실히 증명하며 읍주겨어게 한경고구 된다고하다

失踪한女生徒 誘引魔의手中에?

부내삼청정(三淸町)칠번지 주각경(朱鉦卿)씨의장녀 교동공보 이년생(校洞公普二年生) 리정의(李禎의)(○)는 지난토일 오후한시에 집을나갓는데 지금까지 집에드러오지안허서 유인마의 꾀임에빠저서 어데로다려가버린것이나아닌가하야 차저달라고 부내각서에 수색원이 드러왓다

下女飮毒

시내삼판통(三坂通)이백오십사번지거주의 명치생명주식회사 (明治生命株式會社)사원 반(伴)방에서하녀로잇는 광부(光部)"마쯔에"(○)라는 미모의처녀가 쥐잡는약을 만히먹고 자살을도모하려하다가 집사람에게 발견되여곳 강기정(岡崎町)에잇는 도원병원(稻垣病院)에운반하야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그가의문의자살을 도모한리면에는 실련(失戀)?불의(不義)?등 여러가지로 추칙되나 룡산서형사의 활동과도한병원등의 업비에부치는점으로보아 상당이 복잡한 내용이잇는듯하야 상당이주목을 끌는다한다

侍從武官長을爲始 各要路에祝電決議

昨日京城府會를召集코

남경함락의 쾌보를 접하고 경성부에서는 십일일 부회를 소집하고 다음과가티 시종무관장을위시하야 참모총장, 해군군령부총장, 황족조선군사령관, 륙해군대신,상해최고지휘관, 제삼함대사령관, 상해특별륙전대사령관, 북지최고지휘관, 북지파견천안대단장, 근위내각총리대신에게 각각 함락축전을 결의하야 발송하얏다.

侍從武官長殿

支那膺懲을 爲하야 征討의使를派遣하신 聖戰玆에半歲 드듸여其首都南京을 陷落하야 史上曠古의大勝을決하고 皇軍의 稱譽燦然하야 八紘에빗나고 國威를 中外에널리어 國民이 다가티 歡喜感激의 念에 不堪할右御執奏를乞함

京城府尹 佐伯 顯

參謀本部 海軍軍令部 皇族附武官 宛

暴支膺懲의 王師出하야 正히 半歲 御稜威下 勇戰奮鬪 北支에又는江南에 連戰連勝의 偉勳을發揮하고 萬邦均히 驚異하고 잇는데 今에又敵의 牙城으로잇는 首都南京陷落의 快報에接하야 七十萬府民은歡喜慶祝 이로 말할수업슴 本日京城府會는 議決로써 皇軍의赫赫한戰果와 史上曠古의武勳을祝福하고 長期의 御勞苦에 對하야 衷心感謝感激의 誠을 捧하는同時에 玆에삼가 深厚한敬意를奉表함

京城府會議長 京城府尹 佐伯 顯

右陸軍參謀總長宮殿下에 海軍軍令部總長宮殿下에 言上을乞함

大本營陸軍大臣 大本營海軍大臣 宛

暴支膺懲의聖戰 正히半歲 御稜威下 雄渾한籌劃과 陸海軍緊密一體의 作戰으로써 神速果敢하게北支에 又는 江南에敵의重要據點을 擊碎하고 皇軍의稱譽燦然히萬邦에發揮하는때 이제도한 金城湯池 堅陣을자랑하는首都 南京陷落의 快報에接하야 七十萬府民은 歡喜慶祝함은 이로말할수업슴 本日京城府會는 議決로써 皇軍의赫赫한 戰勝과 史上曠古의 武勳을祝福하고 長期의御勞苦에對하야 衷心感謝의 誠을捧하는同時에 玆에삼가 深厚한敬意를表함

京城府會議長 京城府尹 佐伯 顯

松井上海派遣軍最高指揮官閣下 宛

上海方面에 作戰하신閣下의 精銳는 驕敵堅壘深塹에據한 衆敵을席捲粉碎하고 更히神速果敢怒濤決河의勢로써 戰史未曾有의大戰線을 江南의野에展開하야 皇軍의稱譽燦然히 萬邦에發揮하는때 更히 今回敵의牙城으로잇는首都南京陷落의 快報에接하야歡喜慶祝함은 이로말할수업다 어는實로 御稜威下 閣下의雄渾한 籌劃과 周到한籌劃과 參戰將兵各位의 忠勇武烈犧牲奉公의 賜物이라고信한다 本日京城七十萬府民의 代表인府會의 議決로써 皇軍의 赫赫한戰勝과 史上曠古의 武勳을 祝福하고 長期의 御勞苦에 對하야 衷心感謝의 誠을 捧하는 同時에 삼가 深厚한敬意를 表함

京城府會議長 京城府尹 佐伯 顯

長谷川第三艦隊司令長官 宛

貴艦隊將士各位는 長期間 艱難을 克服하고 或은 支那海封鎖의 實을擧하야 敵의交通을 遮斷하고 或은 陸軍과 緊密一體의 作戰에 依하야 堅壘를擊碎하고 特히 其空軍의 偉績에至하야는 萬邦이 均히 驚嘆刮目하야 마지안는바이다 今回敵의 牙城으로잇는 首都抗日의本據인 南京을 攻略하야 史上曠古의 武勳을 示하고 皇軍의威武를 遺憾업시 中外에 宣揚하얏다 이는 오로지 御稜威下海陸一致 果敢力功의 賜物이라고 信함 本日京城七十萬府民의 代表인府會의 議決로써 皇軍의 赫赫한 戰勝을 祝福하고 連日連夜의 御勞苦에 對하야 衷心感謝의 誠을 捧하는同時에 삼가深厚한 敬意를 表한다

京城府會議長 京城府尹 佐伯 顯

大河內特別陸戰隊司令官 宛

貴陸戰隊將士各位는 出師以來旣히 半歲모든 困苦艱難을 克服하고 堅忍保壘를 粉碎하고 寡兵으로 能히 衆敵을 擊破하야 써 國威宣揚과 同胞保護의 大任을 完全히하고 今에 明朗上海의 曙光을 보라고하는때 更히 今回敵의 牙城으로잇는 首都南京陷落의 快報에 接하얏다 이는 實로 貴陸戰隊將士各位의 勇猛果敢 戰鬪의 賜物이라고 信한다 本日京城七十萬府民의代表인 府會의 議決로써 皇軍의 赫赫한 戰勝을 慶祝하고 連日連夜의 御勞苦에 對하야 衷心感謝의 誠을 捧하는同時에 삼가深厚한 敬意를表함

京城府會議長 京城府尹 佐伯 顯

寺內北支派遣軍最高指揮官閣下 北支派遣川岸兵團長閣下 宛

上海方面에作戰한 暴支膺懲의 精銳는 長驅江南의敵을席捲하고 更히 江南의野에轉戰 드듸어今回敵의牙城으로잇는首都南京陷落의 快報에接하얏다 王師의 嚮하는바 北에南에鎧袖一觸、國威燦然히 八紘에빗나 참으로歡喜에不堪한다 本日京城府會는議決로써 皇軍의赫赫한戰勝武勳을祝福하고 衷心感謝의誠을捧하는同時에 멀리 將士各位의 武運長久 삼가深厚한敬意를表함

京城府會議長 京城府尹 佐伯 顯

內閣總理大臣近衛文麿閣下

暴支膺懲의王師出하야 玆에半歲 御稜威下 北支의 堅城太原을 攻略하고 更히江南上海의堅陣을 占據하고 更히 神速果敢怒濤決河의勢로 大軍의江南의野에 展開하야 皇軍의稱譽燦然히 萬邦에빗나는 때 이제도 敵의牙城으로잇는首都南京陷落의快報에接하야 七十萬府民歡喜慶祝함은 이로말할수업다 本日京城府會는 議決로써 皇軍의戰勝과 史上曠古의武勳을 祝福함과同時에 我帝國의劃期的一大盛事에對하야 삼가深厚한敬意를表함

京城府會議長 京城府尹 佐伯 顯

甘蔗道知事

남경함락을 축하하고저 감자(甘蔗)경기도지사는 십일일오전열시반에 상해(上海)에잇는 송정(松井)최고사령관 장곡천(長谷川)사령관 대하내(大河內)륙전대사령관에게 각각다음과 가튼 축전을보내다

축용한 황군이 적의수도남경을 점거하엿다는 길보를밧고 각하와및귀부하의 혁혁한 무훈과 로고에대하야 도민과함께 만강의 사의와 경축의 뜻을 표하야 순국(殉國)의영영에 경도의뜻을 표하는동시에 더욱더욱 무운장구를 기도합

今日 南京陷落祝勝日

行事

午前十一時	奉告祭
正午	祝賀會
午後一時	旗行列
午後五時半	提燈行列
午後七時	講演映畵會

絞首臺서露化한 死刑四十五名

今年一月以來의數字

돗기만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찍한죄를 짓고죽지안켓다고 고등법원에까지 상고하야 드듸여 최후의 사형판결을밧고 교수대의이슬로 화한사람이 금년에도 이미열다섯명이나된다 지난일월일부터 십이월십일까지 고등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바든사람은 모두 열다섯명인데 그들의 지은죄명을 분류하여보면 강도살인이 아홉명 간부가공모하고 본부를 죽인것이세명, 치안유지법위반과 문둥병자살인 강간살인등이 각한명으로강도살인이 제일만흔셈이다 그러고 얼이심에서 사형판결을밧고 상고하야 아직확정판결을밧지안흔사람이 열일곱명이나 되야 그들에게는 장차어떠한판결이 내릴지 알수업스나 작년이때의 사형확정판결바든수와비교하야 수로는 어십오명이 줄엇다고한다

道廳全職員도 提燈行列에參加

各部長이先頭引導

경기도청의 남경함락(南京陷落) 축하행사는 경성부의주최미테 합류키로되야 십이일오후다섯시에 전청원은 도청압헤모히여 제등행렬에 참가할터인데 각부장은『황군만세경기도』라고쓴 띄를 억개에메고 간부의선두에서서 기세를돕울터이라한다

陷落祝賀費決定

경성부에서는 십일일 오후세시반에 경성부회의실에서 림시부회를열고 일반회계세입출(一般會計歲入出)로 팔십삼만칠천원을 림시부(臨時部)예산으로 추가하기로 가결하엿다 지나사변이 점점확대됨에따라 출정장병에게보내는 위문품이 증가하게되여 그에따른 경비의증액과 남경함락에 따라 축하회를 개최하게되여 그비용과 인쇄비기타 모든 경비가더돌게되므로 예산을추가게산하게된것이라한다

日曜講話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申公淑氏
聖誕의背景
午後七時 韓熙文氏
未定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彼得氏
未定
午後七時
너머지게하는罪 金英珠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金永燮氏
勝利의宗敎
午後七時 金永燮氏
自助
◇天然町石橋敎會 午前十一時 朴淵瑞氏
合心함
午後七時 柳曾舒氏
未定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金鋼宇氏
信仰의所得
午後七時 卞鴻圭氏
예수를영접하라
◇三淸町敎會 午前十一時 韓熙文氏
聖誕의意義
午後七時 靑少年部
聖誕禮拜
◇宮井町敎會 午前十一時 金顯浩氏
平和의王
午後七時 崔永龍氏
빗을準備
◇覺皇寺 午前十一時 朴聖權氏
維摩居士의風貌

女人命令

李善熙作

彗星가티나타난 閨秀作家의中篇

十二月十七日부터連載

리태준씨의 장편소설 … 끗나게되엿습니다. 이제 본보의 소설란을 한층 더 화려하게하려는 견지에서 여러가지로 고심한 결과 다음 연재소설은 전 문단을통해서 널리 구하느라고 여러가지로 고심한 결과 녀류작가의 명성이라고하는 리선희(李善熙)녀사에게 부탁하여 오는 십칠일부터 중편소설을 실기로 하엿습니다. 이작가의 『女人命令』이라는 화려한 필치에 대해서는 녀류작가들중에서면 뛰여난것이아니라 실로 전문단을 통해서도 독특한 존재이라는것은 이미 정평이되여잇습니다. 이 녀류작가가 가지고나오는『女人命令』은 녀자가아니면 보지못할 새로운 세계를 전개하여 그 청신한 감과 섬세한 필치가 한데 어울리는 데서 독자 여러분의 가진 귀여움을 입시에 모조리라고 스사로 기대하고잇습니다

(作者의말)

장편소설을 하나 써보고십다ㅡ허나 이것은 오직 내마음에 재위노흔 노리개요 내손이 닥지못할곳에 언저노흔 과자(菓子)엿습니다. 이제 돌연히 붓을들어 무엇을 써보려고하니 이야말로 아직도 깨지못한 내꿈의 한토막인듯 진실로 어리둥절 하지안흘수업습니다. 어쨋든 두어 놉흔 선배의 예산엽스신 모험심이 드듸여 서투른 저를 이 어마어마한 무대우에 올려 노흔것습니다. 제가거는 씨를 이것이 여러분께 얼마나한 기쁨을 가저갈는지 몰으나 저는 이 씨를에 한사코 이길 배속입니다. 부듸 여러분의 만흔 지지와 편달을 바랍니다. 『女人命令』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써 보인다는것은 잔서 버릴에 부처두기로합니다. 제가 무슨 활비랑을 꾸미던지 그저 웃고 보아주십시요.

挿畵는 崔根培氏

白衣勇士

百四十名龍山驛着

폭지응징의성전에 북지각지에서 선전하야명예의전상을 입은 백의용사 하사관병 백사십명은 십일일오후여섯시에 룡산역에 도착하는 차로 하차하야 역두에서 군사령관 심전중장이하 각각대장 국방부인회 애국부인회 청년단등 판민다수의 환영을밧고 즉시병원자동차로 룡군병원에로들어갓다

눈에번쩍! "百圓紙幣"

술갑치르는것에서가지고 逃亡가다붓잡힌厥者

부내 본정(本町)오정목에서 파자장사를하는 리영길(李永吉)(○)은 십일일오전일곱시쯤 자기집아프로 술이대취하야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개성부본정(開城北本町)구십이번지 고한옥(高翰玉)을 초청(招請)하야 술먹이다음에 다리고가서 술갑을 지불할때에 백원지페를 꺼내는것을보자 별안간달려들어서 그것을빼아서가지고달아나다가 황금정(黃金町)파출소에서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大金携帶逃走犯

京城方面에潛入形跡

충남홍성군성천면 성천리(忠南洪城郡城川面城川里) 리제유(李濟有)(二五)는 지난십일일상오부터 십이시까지 동군홍동면 평암리(坪岩里) 미곡상 신희설(辛喜稧)(○)의 대두를 사주다고 일천일백오십칠원을 바더가지고 홍성역에서 어대론지 도주하엿다는바 십일일에 경성부내에드러온형적이 잇다고 부내 각서에서는 수배를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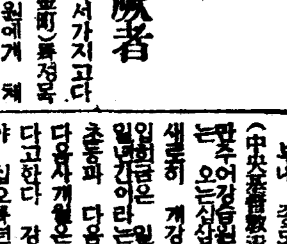
또충남논산군연산면 금융조합(忠南論山郡連山金融組合) 대부계원 김원창(金元昌)이 가십일일오후두시쯤 일천원을채 상우에노아두고 잠간일을보려고 자리를뜬사이에 찰문을열고누구인지 그돈을집어갓는바 그범인도 경성방면에드러온 형적이잇다하야 부내각서에서는 수배하엿다한다

滿洲語講習院 新期開講

부내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中央基督敎靑年會館)안에 잇는 만주어강습원(滿洲語講習院)에서는 오는신년일월오일부터 새로히 개강하기로 되엿다는데 입회금은 일원이라하며 가강은 일년간이라는데 처음 삼개월은 초등과 다음삼개월은중등과 그다음삼개월은 고등과를 지도한다고하다 강사는 만주어에대하야 십오륙년의 경험이잇는 오항헌(吳恒憲)씨이라한다

스포ー츠欄

玄海男君判定勝 馬阿初君을一蹴코



(寫眞은 金明錫君)

米國에遠征中인 우리의拳豪玄海男君은 十一月三日『로스안젤스』올림픽會館에서 墨西哥의支那選手馬阿初君(百三十封度)와十回戰을行한바 判定으로快勝하엿다 馬君은 지난十一月三十日에 玄君과第一次戰에 無勝負로마친뒤이라 玄君은俄然奮起하야 壓倒的으로이겻는데 이로써 玄君은 渡米以後五次의게임에 二勝一判定勝、一判定敗、一無勝負의 戰績을 가저고잇다

比島向發 强拳金明錫君 今夜十一時京城發

常夏의나라 比律賓에 遠征하는 拳鬪代表金明錫君(朝拳)은全日本아마듀어拳鬪聯盟의 召集通知를밧고 今十二日午後十一時十分 京城驛發列車로出發할터이라는데 東京에서 崔龍德(明大) 洪在浩(關大) 左龍振(大阪)諸君과 합께 合宿練習을行하고 十七日에神戶出帆의熱田丸으로 出征하야 二十八日『마닐나』에到着할豫定이라는바 比律賓選拔軍 大學

카닝감健在

米國의中距離選手로 有名한 『그렌·카닝감』은 九月二十六日 뉴욕에서 行한 『큐작』記念競技會의一哩레ー스에出場하야 『메하ー드』大學의主將『하워ー드볼그』를 六米突이나 제치고優勝하엿는데 타임은四分十九秒七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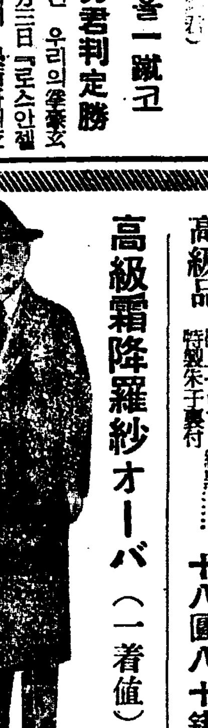
今日의運動

◆卓球=朝鮮卓球協會主催 第七回全朝鮮實業卓球選手權大會 午前十時 蓮建町 大學醫學部에서 (觀覽無料)

防寒 純毛羅紗製品大投賣

兩前型 寸法…(三種)…一枚値
上製品 紺・黑メルトン 新毛裏付……九圓
特製品 黑生地厚地ラシヤ 洋朱子裏付……十三圓三十錢
高級品 極上ベロアー 特製朱子裏付……十九圓三十錢

片前型オーバ 寸法…二尺八寸・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 黑色・紺色二種・一枚値
上製品 紺黑メルトン 新毛裏付……八圓五十錢
特製品 黑生地厚地ラシヤ 洋朱子裏付……十二圓八十錢
高級品 極上ベロアー紺黑 特製朱子裏付……十八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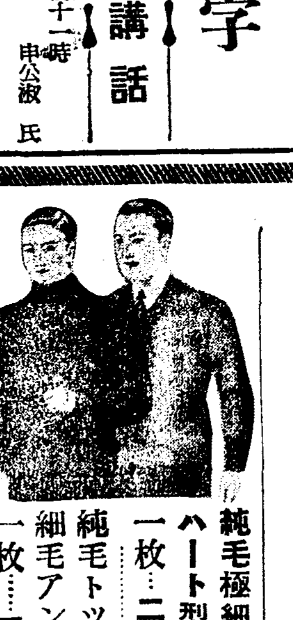
高級霜降羅紗オーバ(一着値)
寸法……二尺九寸・三尺・三尺一寸・三尺二寸四種
上製品 ベロア厚地茶鼠霜降 ラシヤ絹柄ゼック總裏付……十四圓五十錢
特製品 高級ベロアー厚地ラシヤ 霜降茶鼠袖裏絹ゼック……十七圓九十錢
高級品 高級ベロアー霜降朱子裏 茶鼠高級紳士用……廿四圓八十錢

冬向サージ三ツ揃(一着値)
五六〇號 表黑純毛新毛裏三ツ揃 十二圓八十錢
五六二號 表黑純毛洋朱子裏三ツ揃 十四圓五十錢

仕立入念 流行立縞ウーステッド背廣三ツ揃 大中小寸……同値
五五三號 立縞ウーステッ ト地裏紗天裏付 一着 十七圓八十錢

防寒鬼スエーター

八分毛織 防寒用太糸 鬼スエーター 一枚 三圓九十錢



純毛極細 ハート型アンダー 一枚…二圓八十錢
純毛トツクリ型 細毛アンダー 一枚……三圓

防寒コール天洋服 鮮滿向裏付表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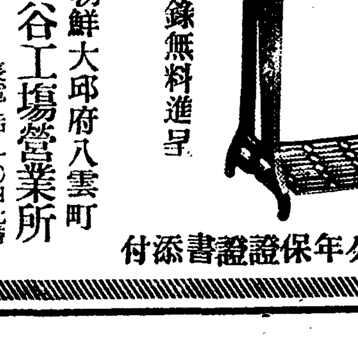
コール天鮮滿服上下裏付バンド付 上衣ダブル、下乘馬ズボン 一着 四圓九十五錢

御注文は……御手紙で御申込下さい御便宜上代金引替で發送す
品替返金……不向の節は品替返金自由絕對御迷惑は掛けません
送料……は御買主負擔のこと當店負擔のこと

御註文は 名古屋市東區京魚町三 近藤商店通信部
振替名古屋一七三八〇番・電話東④九〇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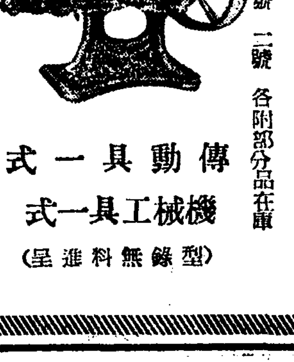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補精腎氣强壯에 神秘的靈效를자진 全世界에唯一한 高貴의實彈眞品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함
果然 百發百中 證明品
發賣元 總代理店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四一八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七三二番

ブラザーミシン 代理店特約店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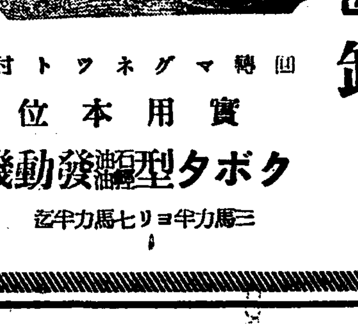
製造直卸
總代理店
朝鮮大邱府八雲町 八谷工場營業所
長電話一〇四七番 振京城一貳二參七番
受信略號 タイキウ、キカイハチヤ
型錄無料進呈
製造元ノ十ヶ年保證書添付
◎日本ミシン製造株式會社製

八谷式精米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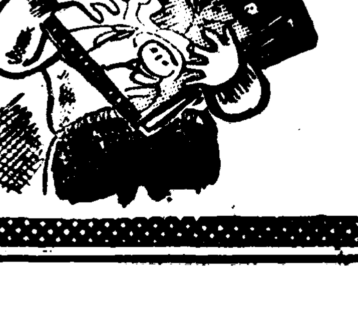
特大號 特號 一號 二號 各附部分品在庫
傳動具一式 機械工具一式
(型錄無料進呈)

最モ完全ナルハチヤ發動機
製造直卸



回轉マグネツト付
實用本位
クボタ型[illegible]發動機
三馬力半ヨリ七馬力半迄

얼마나 애기가 거뻐할까



聖誕、新年、
길거운大晦、元旦에
生日의 禮物에도
선물은
이그림책
…얼마나 애기가
거뻐할까
보내는데편하고!! 바더서깃거운!! 『國語讀本의 그림책』은 어느書店에서도 大賣中 어느분이나 多量으로 꼭 利用하십시요
各地有名書店에서 販賣합니다

首都攻略의 歷史는 反復興亡譜演奏

陸軍吳淞鎭上陸以來僅百餘日

進擊又進擊快速新記錄

國民政府首都 南京陷落!

南京이 드디어 陷落되었다 連戰連勝 破竹의 猛進擊

南京은 벌서 我軍의 手中에 臨하얏다

上海의 風雲 急을 告하야 去八月廿三日早朝 我陸軍이 吳淞鎭에 敵前上陸을 敢行한後 百十九日(十二月十日까지)째는 敵을 突破하고 新鋭陸軍의 杭州灣에 上陸하야 旗鼓堂堂 猛進擊에 移한後 卅六日에 約七十車의 敵陣을 席捲하고 抗日政府의 據點을 占領覆滅한것이다 이武勇은 實로 世界戰史에 稀有한 偉勳이라할것이다 크리스마스까지는 걸리리라고생각하고 冷眼視하고잇든 外國側이 驚嘆의 聲을 發한것도 當然한일일것이다 歷史를 뒤저보건대 火器使用의 戰鬪法이 採用된以來 幾多의 戰鬪를 算할수잇스되 首都攻略의 歷史로서는 莫斯科、마드릿드及 伊太利諸公國首都를 攻略한 所謂 나폴레온戰爭以後는 千八百七十年부터 千八百七十一年에 及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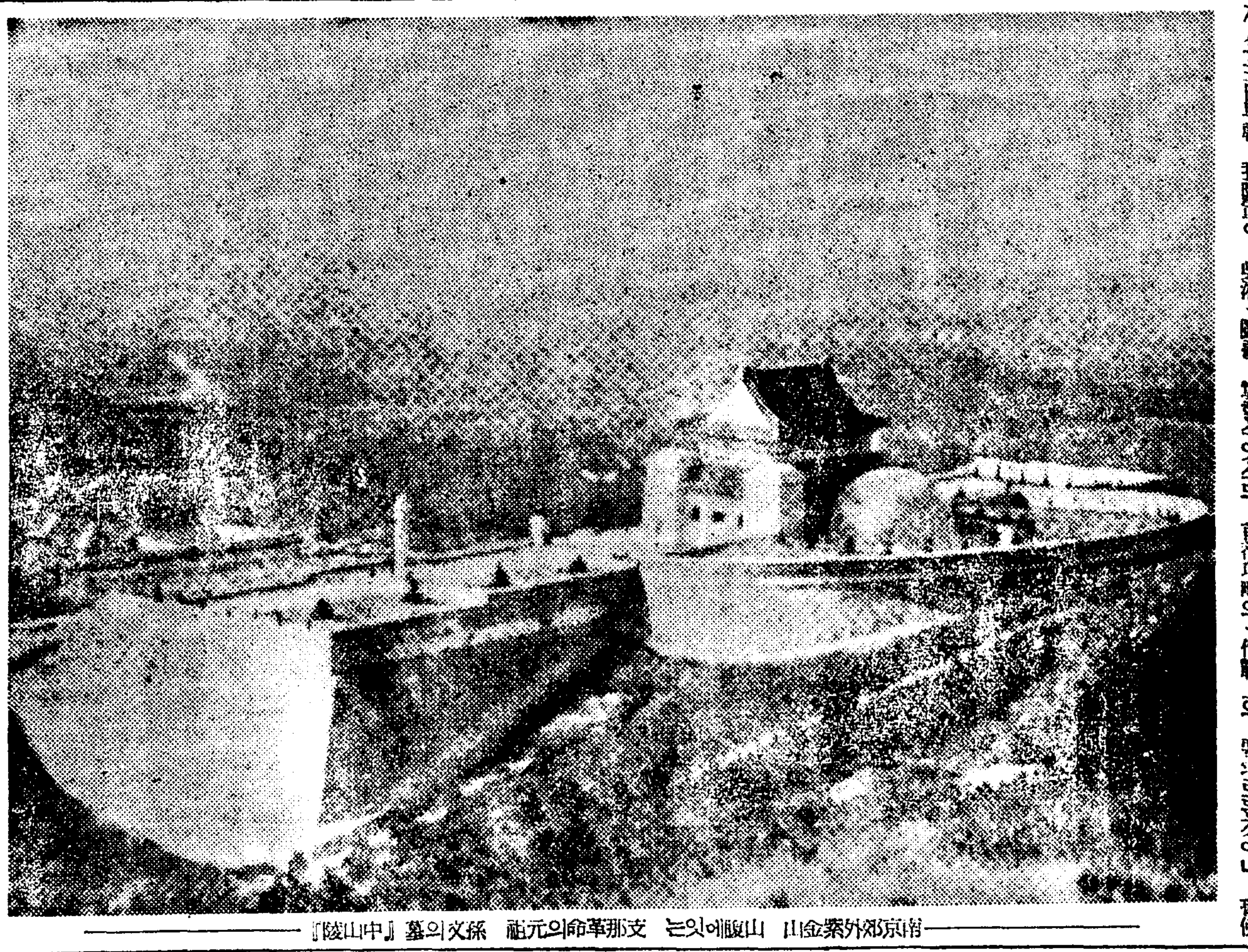
普佛戰爭 當時 普魯西의 巴里占領、明治卅三年 北淸事變當時 各國聯合軍의 北京占領、歐洲大戰當時 獨軍의 브뤗셀占領과 最近의 伊太利軍의 아디스·아베바占領을 들수잇슬뿐이다。 브뤗셀占領은 獨逸軍의 對佛作戰上의 要求로된것이나 普佛戰爭의 巴里占領은 저―有名한 獨逸 베르사이유宮殿에잇서서의 獨逸聯邦結成式이라는 豪華한 劇的場面을伴하고 獨逸民族興隆의 前奏曲이된것이엇다。澎湃한 獨逸民族統一의 時運에 乘하야 이러선 普魯西王월헤름一世는 鐵血宰相비스마―크、名參謀長모르트로케將軍의 輔翼을 受하야 普墺戰爭勝利의 餘勢를 驅하야 단숨에 巴里進擊을 開始하야 佛帝 나폴레온三世를 捕虜로하고 千八百七十一年(明治四年)一月에는 巴里를 包圍하야 城下의 盟約을밧고 베르사이유宮殿에서 獨逸皇帝兼普魯西王의 即位式을 擧行하얏든것이다。이에反하야 各國聯合軍의 北京占領은 淸朝 스스로招來한 結果이나 淸朝衰末의 葬送曲을 奏한것이엇다。明治三十三年四月二十七日 直隸省保定에 이러난

義和團의 蜂起는 直隸全省에波及하고 驟昧한 淸朝 또한 陰陽 이에加擔하얏슴에 始作된것으로 北京駐在의 日本을 비롯하야 英獨米、露、佛、伊、白、西、墺、和蘭의諸國公使館에서는 公使館護衛兵을 北京에 派遣하고六月廿一日淸廷은 宣戰의 上諭布告로 斷乎 陸兵을 派遣하게되엇다 日本은 西比利亞派遣隊의 陸將福島安正少將을 派遣隊司令官으로 廣島第五師團의 一部에서 混成一個聯隊를 編成、英國은香港威海衛로부터 陸兵約一千四百、露國은關東州로부터 스테셀少將을指揮官으로하는 陸兵約四千五百其他佛、米、獨、伊等으로부터도各히 陸兵을派遣하야 此等은六月下旬부터 七月上旬에 亘하야太沽에集結、合하야約三萬三千五百의 聯合軍은 北京으로 攻略의 態勢를 取하얏다 이리하야 八月五日 行動을이르킨日、英、米軍은 白河右岸地區로부터 露、佛、獨、墺、伊軍은 白河左岸地區로부터 北倉附近의 敵을攻擊하고다음에 楊村、南蔡村、河西、馬頭張家灣으로 進擊하야我軍을先頭로 十二日에는 通州에

到達하고 十四日 一擧 北京에 進入하얏슴 이 結果十月十一日 李鴻章의入京을 따라淸朝는 各國과의間에 辛丑和約을 締結하얏스나 마즘내 朝壞의 一途를거러 地方軍閥의 割據의 基地를 培養하게 되엇든것이다 立體的規模로 近代科學의粹를 모은 首都攻略戰으로서는 昨年의 아디스·아베바占領이잇다 昭和十年十月三日 伊太利北部戰線軍團은 北部國境線을 進發하야 아디그랏드·아도와·아스크무의線에 第一躍進을하고 十一月八日에는 엔델타一地方의 中樞地 마카레―를攻落 海拔二千米乃至五千米에 及하는 高原地帶에서 巧妙한 에디오피아軍의 게릴라戰法에對하야 迅速한 運動戰을 展開하면서 이를擊破하고 翌昭和十一年三月十一日 紅海沿岸아자보와베이로부터 進擊하야 사르도―에入한 部隊와 西部最高峰海拔四千六百二十米의 안코와의 地를 넘어 三月二十九日 데바레크에達한 西部部隊와 相呼應하야 南進을繼續하야 四月四日 아산기湖畔의 會戰에 皇帝指揮의 親衛軍을 潰走케하고 이를

追擊하야 十五日에는 데세―를占領하야 아디스아베바攻略의 基礎를 지엇다 이리하야 四月二十三日 바드리리오元帥는 스스로首都占領部隊指揮에當하야 伊太利內地兵、에리트리아兵各一萬、砲兵十一個中隊、快速戰車隊一個大隊 自動車一千六百輛을二縱隊로分하야首都로向할二道路를 分進케하야空軍의協力下에 地形의難을 征服하고 五月五日皇帝가 脫走하야 首都 아디스、아베바에 入城하얏슨것이다 此間實로七個月、八百五十餘粁 天險이라고하나 이를近代的裝備를가진 訓練된精兵이擾하는 築城設備의粹를모은 陣地地帶를擊破하고 上海南京間 三百五十餘粁를 僅百日餘로 席卷한皇軍의武勇에 比하면 그래도더 진感이잇다

歷史는 되푸리한다 首都攻略의歷史는 興隆과 潰滅의 譜音을奏하고잇다 抗日作戰의 據點을잃은 한 南京政府의分裂은 벌서 오르는歲月이 解決할必然的 運命이라고判斷할수잇슬것이다



南京郊外紫金山山腹에잇는支那革命의元祖 孫文의墓『中山陵』

九個國會議劈頭 各國代表一場演說

九國會議顚末 ④ ―金 興 濟―

그러면 브륫셀에 開催하기로豫定한 九國條約會議는 主催國인 白耳義의 팡·제란드內閣이 去十月二十五日에 辭職하엿스므로 英米兩國間에서開會延期를 協議하고 三十日부터의 豫定을變更하여 十一月三日부터 開會하기로 定하고 招請을 拒絶한日本과 十月二十八日 不參加를聲明한 獨逸을 除外한 十九國(英、米、佛、伊、蘇聯、白、支、加奈多 葡萄牙、墨西哥、丁抹、瑞典、和蘭、那威、볼리비아、濠洲、뉴질란드、埃及、印度)이 파레데·아카데미의大理石室에 會集하여 『極東의 憂慮할만한 事態에對하야 隔意업는 意見交換』을하게되엿는데 帝國의 不參加로 因하야 最初부터 **致命傷**을 바든 會議이니만큼 特別한 成果가 엇지못할것은 豫想치못할바아니다 하여튼 會議의 進行은注目되엇다。

九國會議第一日인 十一月三日은 主催國인 白耳義外相안리·스파氏가 議長으로 被選된後 스파議長과밋 米、英、佛 伊、蘇、支、葡의 各代表가 一場의 演說을 試한以外에 何等 特記할事實이업섯다。이제 그演說의 槪要를 紹介하면、

▲스파議長‖白耳義가 本會議의 招請國됨을 受諾함은 平和達成을 爲하야 列國과 協力하려함에 不外하다。世界平和는 大國의 協調와 國際政策과 그이데올로기에 依存하야잇다 小國은 다못 이에 **道德的** 支持를줌에 不過하다 日本의 不參加는 數多의 難關을 주는것이라고 말치안흘수업다。列國代表는 本會議를 日本의 威信과 名譽를 無視함과가튼 條件下에서 日本을 被告로하야 呼出하는 國際裁判으로看做하지안는다。我等은 本會議에서는 何等他意가업고 和協과 平和가 齎來될 可能性을찻고 一方平和와 權利가 確立되기를 切望한다。

▲米代表데비스 武力抗爭은 各國의 信賴를 喪失케하고國際的貿易을 破壞하야 各國民의 生活水準을 低下케한다。따라서 紛爭解決에는 될수잇는대로 武力을 行使치안코 平和的手段에依하야 論議가 進行되기를 希望하여마지안는다 따라서 武力에 依한 **紛爭을** 擴大케함과가튼 手段을 講究치안흐면 안된다。不幸히 極東의 戰鬪는 擴大되여 在支外國人의 生命權益도 威脅을 밧게되엿는데 本會議에서는 日支兩國에 對하야 戰鬪行爲를 中止하고 平和的手段에 依하야 紛爭을 解決하려는各國의 意見에 一致하기를 그友情과 信賴에 期待한다。戰鬪가 永續되면 永續되는만큼 世界平和는 危險에 陷하게되는것이다。米國은 極東의 平和의 確立에 適正한手段을 講究하는 協定에 參加할 決意를 갓고잇는者다。

英代表이든‖我等은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極東의 平和를 再確立하지안흐면안될것은 다못 道義上義務일뿐아니라 條約調印國으로서 當然한 義務이다。

日本이 本會議에 欠席한것은 甚히 遺憾이다。그러나이 까닭에 我等의 努力을 弱하게 할것은아니다。會議에 參加하고 아니함을 不拘하고 各國은 共同利益을 擁護하지안흐면안된다。

▲佛代表 델보‖萬若 我等이 戰鬪行動을 中止시키지안흐면 現在 極東에 이러난 慘劇의 共犯者라고말해도 할수업다 現下의 病勢에서는 爲先 日支兩國이 武器를버리고友好的交涉을하고 他方으로는 協定의具體的確立에 努力함이 必要하다。

▲伊代表마레스콧티‖日支兩友邦의 間에 紛爭이 發生됨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今後는 그가튼 紛爭을 再發케아니하도록 **徹底的** 解決이 엇서서는 안된다 今番紛爭은 아마 當事國의 協調에 依하야 解決될수잇다고 信한다 日本이參加치안는限 本會議에서 永續的平和를 確保키는 不能하다 本事件의 眞相을 說明할수잇는者는 當國뿐이다 따라서余는 紛爭을 解決하는 最善且實行的手段으로 日支兩國에對하야 直接交涉을 慫慂한다。最後로 余는 對日制裁와가튼것은 全然 問題外라는것을强調하고십다。

▲蘇聯代表리트비노프‖余는 會議가 平和를確保하고 侵略者를 處罰하야 써 今後 世界의 他部分에서의 侵略行爲를 防止하는 措置를 取하기를 希望한다。

▲支那代表 顧維鈞‖支那는 日本이軍事行動을 繼續하는限 和平交涉에는 應할수업다。**如何한** 犧牲을하드라도抵抗할 決心이다。支那가 受諾할수잇는 平和는 九個國條約에基한以外에는업다

▲葡萄牙代表더、카스트로‖葡萄牙政府는 中立의 範圍를 逸脫치안는 範圍內에서 和協을 提議한다。

以上各代表의 演說의 要領을簡單히말하면 모두 現下日支間의 紛爭을 停止하고 協議에 依하야 平和回復에 努力하자는데 意見이 一致하다고 볼수잇다。그런데 우리가 이에特히 注意할것은 伊代表 마레스콧티氏의 主張이다 그가그가티 帝國에 有利한辯論을 吐한것은 元來伊太利가 九國會議에 出席을 應諾한것도 日本과 어떤 種類의 諒解下에 同國이 會議出席의 **權利를** 行使하야 會議席上 日本의 對支行動을 支持하야『갓지못한 나라』의 生存權確保要求의 正當性을 中外에强調할 意向을 가지기때문이엿다。이가티 九國會議에 關한 日伊間의 政治的諒解는 伊太利가 今番事變勃發以來日本에對하야 取한 好意的措置인 對支武器輸出禁止、國民政府로부터 自國人顧問의 撤退斷行 못솔리니首相의 日本支持論說·揭載等과 重要關聯을 가진것이오 또그後 十一月六日締結된 日獨伊防共協定과밋 이에 隨伴하는 兩國의 政治的接近의 基礎的 共同精神의 表現으로 注目을 要하는것이다。

朝鮮水陸上十傑 (本社運動部編)

陸上競技 ②

▲三段跳
1 金源權(平南)一五米一三
2 羅絢成(光成)一四米四二
3 金應鎬(延專)一四米三七
4 李榮福(大醫)一四米〇二
5 金時璜(培材)一三米六八
5 金泓根(養正)一三米六八
7 李榮復(大醫)一三米一一
8 張東殷(一高)一二米九〇
9 朴商萬(普專)一二米八二
10 朴永俊(幽專)一二米八一
(昨年最高記錄 一四米四四)

▲投鎗
1 印康煥(培材)四五米五四
2 李永浩(培材)四一米八七
3 白承旭(普專)四〇米五四
4 朴 鋼(培材)三〇米九四
5 姜永善(高農)三〇米〇三
6 馬鋼國(養正)二九米八〇
7 朴永俊(幽專)二六米九六
8 朴賢宰(普專)二三米〇六
9 李在仁(養正)一五米六六
(昨年最高記錄四七米〇五)

▲走幅跳
1 金源權(平南)六米九六
2 金應鎬(延專)六米八九
3 韓喆鎬(遞信)六米五二
4 馬鋼國(養正)六米四八
4 羅絢成(光成)六米四八
6 金源龍(遞信)六米四七
7 朴永俊(幽專)六米三六
8 李東興(培材)六米二九
9 裴玟煥(黃海)六米二〇
10 金時璜(培材)六米一八
10 朴尙鎭(普成)六米一八
(昨年最高記錄六米六〇)

▲棒高跳
1 蘇鎭南(普專)三米五〇
2 趙雄奎(開城)三米四五
3 馬鋼國(養正)三米四〇
4 盧聖仁(幽專)三米二〇
5 金東昕(松高)三米一五
6 朴勛緒(仁商)三米
6 康昌任(平高)三米
6 金東日(開城)三米
9 李一雨(一高)二米八五
10 南長熙(一高)二米八一
(昨年最高記錄三米五五)

▲走高跳
1 金源昶(遞信)一米八五
2 羅絢成(光成)一米七〇
2 李章完(아俱)一米七〇
4 金澈鎬(養正)一米六七
4 安永漢(培材)一米六七
6 蘇鎭南(普專)一米六五
6 盧聖仁(幽專)一米六五
6 韓貞洙(仁商)一米六五
9 馬鋼國(養正)一米六四
10 鄭漢永(京城)一米六三
10 金大觀(一高)一米六三
(昨年最高記錄一米七五)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話光化門(2)一五六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수리표우유

ワシミルク

육아·보건에 최적합

煉乳中에서 제일安全한것은 이것이요

K10-37

濕布に 에 エキホス

의 기 호 스

純國産品

感冒、肺炎、氣管支炎、
咽喉가다루、肋(腹)膜炎、扁桃腺炎、神經痛
로이마치스、腰痛、火傷、齒痛、百日咳、其
他모든炎症性、疼痛症疾患에 エキホス를塗布
하면局所의血液循環을佳良케하고、充血疼痛을
輕減하고、腫脹을업새고、滲出液을吸收함。
濕布가티번거롭지안코、一回의塗布로서長時間効
力을잘持續함。

結核性肋膜炎、腹膜炎、淋巴腺腫(瘰癧)等에는 エキホス姉妹品인구야고―ㄹ엑기호스의 使用에依하야効果一層顯著함

注意
近時外觀、包裝等エキホス에類似한製品多數잇슴 購入하실際는반다시『エキホス』라고指名을願함。

全國信用잇는藥店에는반다시『エキホス』의備品잇슴

包裝定價
一〇〇瓦 ·五五
二五〇瓦 一·一〇
五〇〇瓦 一·九〇
二 瓩 六·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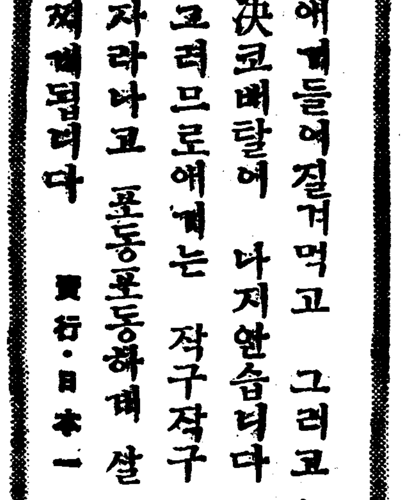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塩野義商店
製造元 三巴合名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EXIHOS

A-70

新鮮純眞

森永ミルク



애기들이 질겨먹고 그러코·
決코배탈이 나지안습니다
그러므로애기는 작구작구
자라나고 포동포동하게 살
찌게됩니다

賣行·日本一

森永煉乳株式會社

百頁十錢의 "少年" "新年特大號"는오는 十五日全國發賣

學生募集

滿洲自動車學校

學則送呈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創立以來十五年 設備東洋第一 合格率最高
就職迅速 在學生百五十名 寄宿舍完備
活動寫眞敎育 乘用車及トラック練習

本科 三個月卒業
受驗科 一個月卒業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 電話(2)二九四四番

十二月十一日부터四日間 每日晝夜二回 밤七時始映 階上卅錢 階下十錢均一

◇松竹キネマ特作品全發聲版 現代名篇 入婿合戰 監督 野村浩將 主演 川崎弘子、高杉早苗

◇西部活劇 大活劇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版 殺人嫌疑者

◇活劇王 콜럼비아社 박크죤쓰氏大活演 全發聲日本版 無法地獄

강大活劇 監督 알·C 젠드氏 主演 제스·다모리쓰、로이드노―란

桃花劇場 電話 一三三三番

大寧江修築要望코 住民二千餘名蹶起
積年被害六百萬圓의巨額
代表八名要路에陳情

【博川에서 本社新義州支局特派員 金明奎發】 십여년 동안이나 년년히 오십만원의 피해를입어 그동안 려년삼년간을 계속하야 평북도평양토목과출장소 총독부등에진정을하야오든 평북박천군 덕안(德安) 박천(博川) 량가(兩嘉)동남(東南) 청룡(靑龍)등 다섯면의 어천여호주민대표로 동군내 유력자여덟명이 어천여호 주민(住民)의 사활문제를 걸머지고당국과 최후적 재단을 청하기위하야 신의주평북도당국을 비롯하야 십삼일평양토목과출장소(土木課出張所) 십사일은 총독부를 방문코 박천군대령강하천정리 밋제방제수제(大寧江河川整理及堤防制水堤) 진정을 하기로되엿다 즉 전기대령강(大寧江)부근에 약륙천정보(六千町步)는대정사변에 창설된 박천수리조합(博川水利組合)창치이후 십여년간이나 "대령강"범람으로 해마다 오십여만원의 피해를 입고잇는상태로 그동안 수차관계당국에진정하야 오든동 금년여름수해때에는 피해가심하얏든 관계로구십만원(九十萬圓)이라는 피해를입어 지방주민은 도저히살수가업다고 지난구일 어천여명이 련서날인하야 관계당국에 진정을한바잇섯스나 지금까지하등의 대책을강구하는 빗치보이지안흐므로 이번에 다음제씨가 주민대표로 진정하게 된것이다

▲新美面前議員尹觀奎 ▲三嘉水利組合長金泰浩 ▲道會議員鄭基鐵 ▲博川水利組合長鄭顯宛 ▲博川有志金昌根 ▲同朴勝勳 ▲博川水組評議員光寶 ▲博川有志金乃寶

今年被害만卅萬圓
被害面積
博川水組(管內)千六百町步
三嘉水組(管內)는五千町步

별항=전기와가튼피해로 어번 당국에진정하기로된 내용을소개하면 덕안면박천수조(博川水組)관내는 미약하나마 큰홍수만나지안는면 근근피해는 업지안헛는데 금년의홍수에는제방이 결궤되여 삼십여만원의 피해를입고 량가 동남 박천등 삼가(三嘉)수조관내는 보안공사가선혀업서 십이년동안이나 매년사오십만원의피해를 입엇다 그러므로 어번진정하려는 요지는 박천(博川)에서 동남면남송동(東南面南松洞)까지의 대령강 호안공사를 하는동시 제방을쌔허달라는것과 어번홍수에결궤된 박천수조관내(저안면북일동(北一洞)에서 서공동(西公洞)까지는 제방이붕괴떠러지므로 어에대한 호안공사(護岸工事)를 하야달라는것이다 그리고 피해구역을수재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갓다한다

▲博川水組管內(全部) 三千町步 中 被害面積 一千六百町步
▲三嘉水組管內(全部) 七千町步 中 被害面積 五千町步

그리고이를다섯면별로나누어보면

▲博川郡德安面 一八五反
▲同兩嘉面 一、○二○反
▲同東南面博川面 一○、七六六反
▲靑龍面 二六○反

등으로 전기와가튼 피해상태에 잇는관계상 대령강(大寧江)연안에사는 어천여호의 농민은 자연압박을바더 매년추수후에 부담하는 수세(水稅)와 비료(肥料)대를 지출하지못하여 도의군생을벗다가는 심지어 야간도주하는농민까지 생기는 상태이므로 당국자로서도 어점에신중고려하야 농민을보호는 견지에서 전기 하천정리와 제방공사는절대로필요함을 요하는것인데 이번에떠난 진정의길에 어느정도까지 효과를보게될는지 어천여지방주민은 큰기대를가지고잇다

慶南"朝共"再建事件
第一回公判開廷
被告金台榮等十二名이出廷할터
十一日釜山法院에서

【釜山】 지난소화십년륙월 경남경찰부에서 모종의 단서를어더가지고 관하십삼 경찰서를 총동원하야 부산、김해、마산、하동(釜山、金海、馬山、河東)을중심으로 경성、함북(京城、咸北)에까지 손을뻐치 일백수십명을 검거한 소위경남조선공산당 재건사건은 대부분 불기소 예심면소등에 처분되고 수모자 김태영(金台榮)정소수(鄭小壽)등십이명을 동년십이월에 예심에 부쳐 파하게 유죄로 결정되여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등죄명으로 부산지방법원공판에 회부되여 엿던바 검거된지 만년반만인 지난 십일 상오십시부터 부산지방법원제이호법정에서 지전(池田)재판장주심 고목(高木)전중(田中)두판사배석 송전(松前)검사립회와 김준원(金埈源) 좌좌목(佐佐木)두변호사출석하에 개정되엿는데 피고들의주소 직업 성명과운동전모의대강은 다음과갓다

- 慶南河東郡 勞働 金台榮(三二)
- 慶南陜川郡 酒造業 鄭小壽(三七)
- 慶南河東郡 洋靴修繕工 李泰榮(三?)
- 慶南馬山府 無職 金洪奎(三二)
- 慶南馬山府 勞働 韓三璘(二五)
- 慶南河東郡 無職 愼萬東(二六)
- 咸北會寧郡 勞働 姜東杜(三二)
- 慶南晋州郡 農業 朴洙命(三○)
- 慶南河東郡 農業 鄭致鎬(二九)
- 慶南昌原郡 無職 李相鮮(二七)
- 平南成川郡 石工 李光熹(二四)
- 慶南馬山府 無職 朴根鎬(二五)

下層서上層으로 同志獲得에沒頭
自身들이農民돼實地體驗後
大衆이希望안는指導機關排擊

피고김태영은 소화륙년십이월에 치안유지법위반으로 부산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동구년칠월에 출옥한후 공산주의제도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동년팔월부터 구월까지사이에 경성부에서 현준혁(玄俊赫)등을맛나 조선공산당운동의 정세를 청취하고 현재 어문에 조직체가업다는것과 도래의조선공산당재건운동에 조직의불통일과 파벌분쟁으로말미아마 실제상태에 빠젓섯다는것을 알게되여 금후운동은 로동자、농민등에 드러가서 실제운동을 체험하는동시 로동대중에게 부러를밧고 아래서 우로의 조직방법으로 점차 중앙조직에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그운동방법으로는 『공산주의배론』을 이월 『테─제』와『프로동인체론』 구월 『테─제』등을 지지할것을 전제로 대중이해하지안흔것과 기관은 조직하지안흘것과 각지방에 적색로동조합 농민조합등을 조직하야 점차중앙조직결성에 나아가도록 할것을 협의하고 또 동구월에 피고리태영을 비롯하야 억년임을경까지저에 리태준、정소수등과 만나 협의한결과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할것을 결정하고 우선남조선지방에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하고자 정소수를 책임자로정한후 김태영은 경남지방『올그』가되고 거다 『올그』를 물색하야 남조선배도에각각『올그』를 파견하기로 하는동시 조직방법은한도(一道)중심으로서 지도기관을 조직하기로결정하얏고 도동십년일월부터 사월까지 경남마산부(馬山府)에서 리상선、강동주、김홍권、현상진、박건석、동팔월에는 부산부에서 리랑회등을 만나서 경남지방운동을 전개할것을결정하고 각각운동을 전개코저활동을개시하다가 경찰에탐지되어검거된것이라한다

不渡手形만激增
七十六枚에二萬二千餘圓
十一月中平壤의集計

【平壤】 다소경기의 회복을보엿다하나 평양조합은행에서 취급한 십일월중의 부도수형(不渡手形)은 소절수(小切手)、약속수형(約束手形)、위체수형(爲替手形)칠십이매 이만이천이백오십사원팔십이전 합계칠십륙매 이만오천삼백사십여원오십이전에 달햇고 부도어음도 삼십구명의 다수로 그중에서 취인정지(取引停止)를 당한자가 잇서 여전히 경제계가 평여하다는것을 설명하고잇다

勝湖里中部敎堂 懸賞童謠大會
오는二十七日에

【大同】 오는이십칠일 오후 한시에 평양부외 승호리 중부교회당에서 소년소녀 동요대회가 열리리라고 하는데 그회소년부에서는 준비에분망중이라고 하며 벌서부터 일반은 대성황을예기하고잇다 그리고 선상은 일등으로 오등까지로동면각교회에서는 연사세명식을보내리라고한다 그대회의 규정은 다음과갓다 ▲申込期十二月十五日까지 ▲資格十六歲까지 ▲申込場所 大同郡梨木里 朴都部方

南京陷落記念 月五十圓獻納
大邱楝居氏熱誠

【大邱】 대구부동운정(大邱東雲町)주상(酒商)동거사랑(楝居四郞)씨는 대구헌병대(大邱憲兵隊)를 방문하고 남경함락기념으로써 금오십원을 헌납하엿는데 씨는이번사변이 끗날때까지 매월오십원식을 헌납하기로 선정하엿스므로 주정(酒井)헌병대장을 위시하야 개원일동은크게 감동하엿다

權明善女史熱誠 獻金코또祈禱

【大田】 대전군류천면 갈마리(大田郡柳川面葛馬里)부인회장 권명선(權明善)씨는 대전부 정운성(鄭雲成)군수의 선국장면에 감격하야서 즉시 집에돌아가 자기남편의 명의로 국방헌금일백원을내고 자기의 명의로 사십원을 헌금한외에 매일과가티 황군의승리를 기도하고잇서 매우일반의 경탄하는바 이라고 한다

李順禮氏校葬執行

【宣川】 선천 보성녀학교(保聖女學校) 교원겸사감(敎員兼舍監)으로잇든 리순례(李順禮)(二五)선생은 지난륙일 장차 복장을 예상하는 학교의 장래와 사랑하는 학생들의 압길을 인도하면서 기숙사일우에서 세상을 떠낫든바 구일오전 학교장(學校葬)으로 동교 교정에서 다수인사참집하에 성대히 고별식을 거행하엿다고한다

新義州署年末警戒 浮浪者四名檢擧

【新義州】 신의주서에서는 년말경계의 제일착으로 구일오전두시부터 동여섯시까지에 어르러사법계와 총동원하야 부내의일제검사를 한결과 충남례산군고덕면 호림동(忠南禮山郡古德面好林洞) 리선래(李善來)(三二)외 내명의 계산한 부랑자를 검거하야 방금 취조중이라한다

惠山鎭驛業績良好

【惠山鎭】 혜산진역에 개통된이후일개월간에 다대한성적으로 수입이 어만사백어십오원이라는 호성적이엿다는데 금후 목재도 사업금도가 완성되는날에는 신혜산진의발전과더불어 목재수출의 발전을볼것이라는바 일개월동안의 영업성적을 표시하면다음과갓다한다

- 乘車客 一一八○八名
- 降車客 一三五○五名
- 入場客 二○六○名
- 旅客收入 一三七九五圓
- 手荷物收入 四○五圓
- 一四四圓
- 計 一四三四四圓
- 手荷物發送 大四五個
- 手荷物到着 (三六三一기로) 一○二九個
- (六一五기로) 九○四噸
- 六○七六圓
- (二一六四기로) 一一一六個
- (一五六七기로) 三三九一噸

匪賊萬團副一派 七十名射殺判明

【新義州】 평북대안 환인현(桓仁縣)부근에 근거를두고 량민으로부터 금품을강탈하든비적 만단부(萬團副)의부하 칠십명은 지난달이십삼일 동현제삼구파출소(第三區派出所)(외자구)부근 『키르』지점 산중에서 사살된것이 수일전에 판명되엿다고 평안북도경찰부의 조사에 잇다한다

南浦、龍岡溫泉間 電話遂開通

【鎭南浦】 진남포부설동사중에 잇든 평안남도의 룡강온천(龍岡溫泉)에는 우편소가 설치되엿스나 전신전화가 개통되지안허 일반의 불편이만튼바 십일부터 진남포와 룡강온천사이에 전화가 개통되엿다고하며 전화료금은 한통화삼십전이라고한다

大規模의鴉片密輸團
百四十名大量送局
그中女子만二十餘名으로
十日光州檢事局에

【光州】 전남은 타도에서 볼수업슬만치 마약(痲藥)중독자가만흐므로 전남도위생당국과 민간유지들의협력으로 다년간그들중독자근치와 예방에노력한결과점차그수효가 적어가며 마약중독자로인한 피해도 업서저 가는데 최근에어르러 또다시 마약중독자가 점점만하짐을안 광주경찰서에서는 그의원인을 엄밀한결과 의외에도 대규모의 아편밀수단이잇서 그들은만주(滿洲)방면에 특파원을보내여 수십차에나노하 밀수입을하는동시에 량가의부녀들을통하야 보통사람으로 생각치도못할만치 비밀히 밀매를하야전남도일원은물론 전북도와경남도일대까지 즉남조선삼도에 뻐처 대대적으로 마약을 밀매하고잇는것을 탐지한 소관광주경찰서에서는 권(權)사법주임 지휘로 주범인 광주부 양림정(光州府楊林町)사는 정중모(鄭仲模)(四?)외 남녀 약이백명을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든바 일단락을 짓고 지난십일에 일백사십명을 광주검사국에 대량송치하야 향천(香川)검사가 당임취조하게 되엿는데 그중 녀자가 이십명이나된다하며 전기일백사십명의 송국에 신체불구속자는 사십칠명으로 이와가튼사건은 전조선적으로도 볼수업는 큰마약밀수단이라한다

公州에火災

【公州】 지난구일오후한시반경에 충남공주읍대화정(公州邑大和町)일백칠십구번지 리승해(李承海)의집에서 출화한것을 소방대와 고등보통학교생도까지 출동하야 진화에노력하엿스나 삼시간에 그집은 전소하엿는데 출화원인은 부엌에서 잘못되여 실화된것이며 손해는조사중이라한다

大田藥令市! 十八日부터開市

【大田】 남부조선의중앙인 대전의약령시(大田藥令市)는 력사깁흔 다른약령시를 능가하리만치 번창하야 해마다 대기염을토하고잇는바이어니와 금년은지나사변으로 당재(唐材)의수입금지제한약재의 폭등으로 일반약재(藥材)의등귀를예상한 대전약령시에서는 금년에다방면으로 활약하야 조선산약재의 구비는물론이오 귀한당재까지 대대적으로구비하야 남창당(南昌堂)、박창당(廣昌堂)을필두로 각건재국에풍부히준비되야잇서 오는십팔일부터 약령시를개시한다고한다 특히금년은 본보대전지국을위시하야 상공회의소 도위생과의후원으로 매우성대할모양으로 충남의약조합(忠南醫藥組合)에서는준비에매우분주중이라고한다

"營業種目을變更턴지 不然이면移轉하라"
海州邑當局의命令바든雜貨商과布木商
四十七個店鋪의死活問題

【海州】 해주읍오면어누의 중심으로 세워노흔 해주공설시장(海州公設市場)은 대정구년에 설립하고 소화사년에 현재점포잇는것을정축하야 지금현재로로선(露店)일백팔십군데와 점포(店舖)칠십칠개소가 공설시장내에서 상업을하여 오든동인데 지난호일 해주읍(海州邑)당국에서는 읍장대리로 최부읍장(崔副邑長)이 공설시장사무소규정을창하야 공설시장상인으로 조직된 공설시장번영회(繁榮會)의역원오륙인을 불러가지고서 공설시장칠십칠개소점포중 잡화상과 포목(布木)상을하고잇는 사십칠개소점포판은 식료품(食料品)으로 영업종목을변경하는것이 엇더나하는자문을하는동시 만일영업종목을변경하지안흐면 공설시장 규률(規律)에 버서남으로 부득이서가지로이전하야 영업하지안흐면아니된다는말이잇슴으로 소자본을가지고 상업을하는사십칠개소 점포주들은 여대로진행할것인지? 또는엇더한 대책을 강구할는지 일반은매우주목을가지고잇다한다

海州公設市場
食料品以外는 市場規則에違反
海州邑當局處置를注目

【海州】 별항보도한바와가티 읍당국에서 처음공설시장 설립당시는 모든식료품만을 두거로하고설립하엿스나 그당시는 해주읍이 발전을 보지못하고 점포도비여잇는 상태이엇슴으로 포목상이나 잡화상을 묵인하여나려와서는것인데 지금에와서는해주읍이 발전을보고 도한압으로 부(府)에승격을 보게될처지에잇는 시에 도한포목과 잡화상등은 시장설립규률(規律)에 버서난것으로 이제와서는 할수업시 읍당국에서 공설시장규률대로 하자는것으로 그러나 공설시장번영회대표수명을 불러가지고 영업종목변경에 대한자문을 한것인데 읍당국에서는 영업종목변경을하지안흐면 공설시장 장소를떠나서 서가지로 이전영업하지안흐면 아니될처지인데 지난팔일에는 현재잡화포목(雜貨布木) 영업종목변경과 여전기한을 요구하엿다는데 사십칠개소점포주들은 소자본으로 상업을하는처지임으로 별안간에 영업종목을 변경할수도업는처지이며 다른곳으로이전도할수업는것인데 칠일에는 공설시장 점포주사십칠개소대표로 현영회장 전성기(全成基)리재경(李在慶)량씨와 수명이 읍장을 방문하고 현재상업들의 영경과 처지를 사정하고 종전대로상업을그대로하게하여달라고 진정하엿든데 금후읍당국에서는 엇저케 나갈는지 일반은 퍽욱주목을 가지고잇다한다

進永產組理事의 橫領事件公判
三年間執行猶豫

【釜山】 전경남 진영(進永)산업조합리사 박수갑(朴秀甲)(三四)에 대한 재직중 전후수십회에구하야 보관금칠천여원을 소비한업무횡령사건에관한 공판은 지난구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여 염전(鹽田)판사로부터 징역십개월을언도하엿는데 피고가사실을인정하는동시에 회오(悔悟)의정이엿슴을 인정하는동시에횡령금은 전부변상된점을 참작하야 삼년간의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의 판결언도가잇엇다

彦陽面長誣告事件
懲役十個月言渡
九日釜山法院에서

【釜山】 면장배척문제를 싸고돌든 경남울산군언양면(蔚山郡彦陽面)오종영(吳宗泳)과송재술(宋在述)에관한 무고사건의공판은지난구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정되여 지전(池田)재판장으로부터 오종영에게 징역십개월 송재술에게 징역팔개월의 각각판결언도가잇섯다

信託農場爭議解決

【東萊】 기보=충남아산군 온양면온천리에 사무소를둔 조선신탁회사온양농장(朝鮮信託會社溫陽農場)내의 동군 탕정면해곡리(湯井面海谷里)에 거주하는 소작인 삼십오명은 금년도 도조가 너무만타하야 공주지방법원에 조정신청(調停申請)을 하여왓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얼마전 동회사에서는 사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소작인들과 원만히 타협하는동시에 금년 도조는 기왕납입된것에서 명년도추수게에가서 금년도에 손해된것을 보충하여주기로하엿다한다

饑寒의貧民爲해 同情手巾販賣
永生女高生들이

【咸興】 함흥영생녀자고보(咸興永生女子高普)의 년종행사의 하나인 동정 『헨거치프』의 판매는 구일오전열시부터 그학교사백여명생도 직원이 총동원하야 추운바람을 무릅쓰고 거리거리에서서 팔고잇섯다 이『헨거치프』는 한개십전식으로 판매수입으로서 세안에 떨고잇는 불상한사람들에게 따뜻한 한개의밥 한벌의옷이나마 선사하려고하는 따끈한 미행으로 길가는사람들의 발을 멈추게하얏다

長篇小說 濁流 【62】
蔡萬植 作 鄭玄雄 畵

千兩萬兩 (9)

그러케 될일이고보매 초봉이는 그 곡절을 차마 이얘기하기가 낯이 뜨거웟든것이다.

『그러구저러구간에……』

유씨는 더 캐어 물을려고하지아니하고 그래서 요정을지어 말을한다.

『……잘되엿다 그까진데 서울은 간들 실상 무엇이 잇겟니? 그러 두드러진 무에 잇겟니? 아주 여저바려라. 그러구 시집이나 가거라』

초봉이는 끄덕말은 심상하게 귀녀겨 들엇다.

전에도 량친이 늘 마주안기만하면、초봉이가 듯는데고 안듯는데고、어서 시집을 보내야겟다거니 벌서 느저가서 걱정이라거니 이런이얘기를 하군햇기 때문에 오늘저녁에도 그런말인줄만알엇든것이다.

한편 유씨는 오늘저녁에 그말을 할가 그만둘가 망서리든 참이다.

갈려든 서울을 못가고、저러케 풀어죽어 만사에 경황이업서하는데 혼인이얘기란 어찌생각하면 세수빠진듯하기도햇다。

그러나 일변 생각하면 그애가 그럴수록이 혼인이얘기를 해주어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돌리고 당한것은 어서 바리도록 하는것도 게제에 조흘성십헛다。

그래 위선 그러케 운만따노코는 어떠케할고 하고 다시한번 궁리를하는데 건넌방에잇든 계봉이가 건너와서 살며여 들어안는다。

그는 오늘 초저녁부터 눈치를여 이상하고하니까 필경 형의 혼인이얘기겟지하고 궁금증이나서 건너는왓서도 도루 쪼차보내갈가바

『나두 바누질좀 배워예지…』

하고 눈치를 딸굿딸굿 여살핀다。유씨는 돗보기넘어로 눈을 한참이나 홀기더니、

『여우가튼년! 무척 바누질이 배우구십것다? 그러다가 꺼정 사람되제?』

『어어구 어머니두!…。바누질 못한다구 시집갓다가 쪼겨오면 어머니는 속이 시언하겟수?』

『말이나 못하나? 저년은 주동아리만 알루 까노앗서!』

『해해、그래두 어머니딸은 어머니딸이지어?』

『내속에서 내년자는 웨장녀가 어떠케 생겨낫는지 나두 몰오겟다!』

『그러치만 어머니、나는 벼자른 훌륭한딸이 어떠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왓는고? 그게 이상한걸?』

『저년이 알려저서 싸움、깨물구잇구만!…。그러케、까불구 분수하게 굴려거든 저방으루 건너가』

『내에 거저 다소곳하구 안저서 어머니 바누질하시는것만 보겟습니다』

유씨는 계봉이를 지정하는체모 그애가 건너와서 분배를 노코나니까 초봉이와 단둘이 안저잇슬때보다 숨쉬이기가 가벼운것갓고 그래서 이얘기를 하기도 훨신 수나로울듯 시프다。

『이애야 초봉아?』

유씨는 음성에 정과 점잔을 다 가추어 부르면서 짐간 고개를 드리본다.

초봉이는 모친이 무슨 긴한 이얘기가 잇길래 음성까지 가다듬어가지고 그러는고해서 마주 고개를 처든다.

『…너두 벌서 나이가 스물한살이니…』

유씨는 이러케 서두를 내노코는 이어서 하는말이……

『히말이아니라 우리가 고향에서 그래두 조석거정은 아니하고살든 그때가튼 처지다면이야 너를 나이 스물한살이나 먹두록 두어두엇슬것이며 또 너를 내노아서 그 푸달진 도버리를 식히느라고 오늘처럼 박제호따우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고서 그런 경우빠진짓을 하게 하진들 햇겟느냐。그게 다 집안이 치패해서 궁하게 살자니까 범사가 그지경이로구나』

유씨는 이러한말 말고도 별별 잔사설、별별 구느름을 다 늘어노코는 근기야、그러더니 네나이 한나이라도 더 들기전에 맛당한 혼처가잇스면 하루바삐 혼인을 해야 하겟다고、너의부친과 안지면 그걱정을 하든참이다 고 겨우 지리한서론을 끗마친다。

그러고나서는 또다시 음성을 이번에는 의론스성잇게 끈처가지고

『너、혹시 저넘어 한참봉네싸전집말이다。그집에 기식하구 잇는 고태수라는사람、저 앗다 ××은행소 다닌다는 말이다、그사람 더러 본적잇느냐?』

하면서 고개를 처든다。

초봉이는 고태수라는 말을듯자 아! 드디어 여기까지 벳삭 디리대고 유박을 햇고나하면서 몸을 떨엇다。

그동안 초봉이는 고태수라는 사람의 세찬 정기가 미묘하게도 심정가운데로 돌코들어오는것을 막으며밀리면 설로 역전고투를 해왓섯다。

感冒解熱に 實効散

中毒副作用絶無 藥効不變、婦人兒童이安心하고服用할수잇는─實効散을!

感冒解熱 特効藥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各地藥店에잇슴 東京神田區下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三三七二番

シスター商會 大サービス

●蓄音器界空前의巨砲

好時機는또업다 곳申込하십시요

≪申込規定

●申込은白紙에 朝鮮日報라記入하야 四錢切手를貼付하야보내십시오。
●切手封入申込者에限하야本社特製色刷美本「特選現代歌謠集」及「씨스타─레코─드歌詞集」의美麗全集一冊과씨스타─레코─드 新譜를共付씨스타─蓄音器
●規定當籤者와共히郵送함。

어優秀한蓄音器를─ 어째無代進呈하는가

シスター携帶用 蓄音器、無代進呈

▲꼭 한번 읽어보십시요

시금까지 各社에서 販賣하고잇는 蓄音器레코─드의갑은너머나비쌉니다。其理由는各社가 猛烈한宣傳戰을함으로其費用만이라도莫大한것입니다。이費用이機械一臺레코─드一枚에 包含되여서、結局여러분이벗산宣傳費를支拂하고잇는것입니다。우리社에서는各社의激甚한廣告戰에合流하는것을避하고、宣傳費의一部를가지고여러분에게廣告物一臺식進呈하야其優秀한眞價를알려드림이고、短時日에坊坊谷谷에까지도우리씨스타─의蓄音器를알여주시기爲하야새로운宣傳을하엿습니다。그러나蓄音器를거저바더가지고어떠한宣傳을하는것인가等疑問을하는분도잇습니다만當社로서는「이런宣傳을하야주시요」等을要求하지안습니다。거저蓄音器를無代進呈하는代身씨스타─레코─드를購求하여주시면共鳴者이고또器械가到着하거든近處의여러분또는知人友人의來訪時等에當社의豪華한蓄音器로本社의훌륭한레코─드를틀어드리면 좃습니다。進呈引換券이到着하거든될수잇는대로市內에게신분갓가히게신분은直接來店하야주십시요。먼데분은運賃當社負擔으로보냄니다。申込者多數인때에도蓄音器進呈하오니될수잇는대로이廣告날부터十日間內로申込하십시요

申込先 東京市本所區綠町三丁目四番地 シスター商會宣傳部 四錢切手

申込稱式 申込書 新聞名 住所 氏名 ○○線○○驛

●無代進呈의蓄音器는運賃當商會負擔으로보내오니鐵道便으로가까운驛名을必히記入하십시요

品質優秀 堅牢保證 實物縮寫 寸法

最新式裝置完備 無代進呈의蓄音器 定價貳拾八圓也

代理店募集(全國一市一郡에限함 希望者는左記로) 東京市本所區綠町三丁目四番地 合資會社 シスター商會